

## 선정작 1 <소년 대로>

- 고정민 작

### 1. 등장인물

세훈 : 남 20세, 팸(Family)의 대장  
경선 : 여 20세, 세훈의 여자친구  
민 : 여 19세, 가출 소녀  
철수 : 남 19세, 가출 소년  
은아 : 여 20세, 대학생. 세훈의 첫사랑  
갯맘 : 여 생물년, 신원 미상  
옆집 : 남 52세, 집주인 아저씨  
포우 : 길 고양이

### 2. 무대 구상

1. 지면에서 다섯 걸음 내려온 아이들이 머무는 반지하 자취방 또는 무작정 떠도는 거리.
2. 경사진 처마 끝, 길 고양이 포우가 잠시 머물다 반짝 사라지는 쪽방 언저리.

### 3. 콘셉트(Concept)

있는 세계와 있어야 하는 세계의 충돌.

### 4. 시놉시스

*'세훈아, 나는 왜 혼자가 된 걸까?'*

소년 대로(Boy's Highway)는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선, 퇴소 청소년들의 아픔과 홀로서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망망대해 같은 큰 대로에 서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작정 거리를 떠도는 이 작품 속 아이들은 어느 날, 조난 당한 길 고양이 포우의 신변처리를 두고 서로 간 생각이 갈리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행복을 잠시 미루거나 하고 싶은 건 참아야 한다는 의견과 보다 확실한 지금 여기의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길 고양이 포우와 함께 공존하고 싶다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세상과 곧바로 조우하고 자립해야만 하는 커다란 숙제를 떠안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가꾸고 고민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슨 질문을 남기게 될까요.

## 5. 장면별 줄거리

1장 : 보호종결아동, 가출 청소년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방. 주인공 세훈은 신입 철수를 맞이함.

2장 : 세훈의 여자친구 경선, 펌(Family)의 막내 민은 얼마 전부터 그들 주위를 떠도는 한 존재에 관해 이야기.

3장 : 세훈의 첫 사랑 은아, 아주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오다.

4장 : 아이들, 조난 당한 길 고양이 포우를 발견하고 구해냄. 이를 둘러싼 고민이 시작되다.

5장 : 세훈, 은아를 만나다.

6장 : 아이들, 길 고양이 포우를 돌보다가 낯선 어른들의 방문을 받다.

7장 : 세훈과 은아, 경선은 오랜만에 셋이 마주 서다.

8장 : 세훈, 길 고양이 포우를 끌어안고 거리를 헤매다. 이내 갈 바를 모른다.

9장 : 민과 철수, 포우에게 발정기가 찾아왔음을 알아차리다.

10장 : 아이들, 포우의 중성화 수술 및 신변처리를 둘러싸고 큰 다툼을 벌이다.

11장 : 민과 철수 그리고 캣맘, 아파 누워있는 포우를 바라보다.

12장 : 세훈, 은아에게 기묘한 숙제를 건네받다.

13장 : 경선, 민과 대화하다 문득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14장 : 철수, 세훈을 만나서 자신의 마지막 결론을 말하다.

15장 : 은아, 세훈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언인지 설명하다.

16장 : 낯선 어른, 익숙한 세상의 방식으로 손을 뻗다.

17장 : 세훈, 어지러운 도시의 빌딩 숲, 골목 사이로 지문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다.

18장 :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에필로그 : 또 다시 혼자가 된 사람들, 서로의 이름을 묻다.

## 선정작 2 <불장난>

- 이예진 작

### 1. 등장인물

수지 : 매일 부모의 싸움으로 전쟁이 끊이질 않는 집, 엄마,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곧 떠날 것만 같은 공포로 언제나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수지는 어린 시절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족에 대한 기억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다.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 좋다. 그럼 꼭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동주 : 수지의 남동생. 전쟁 같은 집에서 언제나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있기를 가족에게 강요당했다. 어느 날 자신의 친구 상욱이 불을 지르러 가자고 하게 되어 우연히 따라가게 되면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상욱 : 아빠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뒷산에 가서 잘못된 개수대로 맞는다. 매일 맞고 있지만 자신이 왜 대체 맞아야 하는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한다. 어느 날, 동주에게 이렇게 살 바에 억울해 차라리 사고를 쳐서 혼나겠다고 하며 산불을 지르러 가자고 한다. 하지만 늘 그랬든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 겁이 난다.

### 2. 무대구상/컨셉

아이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어른들과 집과 학교.

이야기 속에 어른들이 존재하지만 무대 위에선 형체도, 목소리도 등장하지 않는다.

청소년 인물들만의 감정과 말들이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존재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 공간들 역시 이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에 눈과 감정에 따라 왜곡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시공간들이 무대 위에 구현된다.

이들에게 보이는 '집'은 어떤 공간일까?

이들에게 보이는 '뒷산'은 어떤 모습일까?

이들에게 보이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 3. 시놉시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동주, 수지, 상욱, 그리고 멧돼지의 뒷산 생존기

수지는 어린 시절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족에 대한 기억에 집착한다.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지금 더이상 변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전전긍긍한다. 동주는 수지의 남동생이다. 매일 부모님의 전쟁으로 황폐화 된 집에서 조용히 있기를 가족들에게 강요당했다. 동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삶이 지겹다. 동주의 친구 상욱은 아빠의 말도 안 되는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맞는다. 자신이 대체 왜 맞아야 하는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도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한다.

어느 날, 상욱은 아빠한테 이유 없이 맞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사고를 쳐서 혼나겠다며 동주에게 학교 뒷산에 불을 지르러 가자고 한다. 하지만 불을 지르려는 순간 상욱은 결국 아빠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 도망간다. 동주는 산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충동을 느끼게 되고 끝까지 남아 홀로 작은 불길들을 곳곳에 만들어 낸다.

학교에서는 동주의 불장난으로 난리법석이고 수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욱은 아빠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난생처음 느껴본 해방감에 동주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다. 결국 수지와 상욱은 동주를 찾으러 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지는 죽은 멧돼지 사체를 곳곳에서 발견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상욱은 총소리에 놀라 산속에 수지를 홀로 두고 또다시 도망친다. 동주는 불이 붙지 않아 지쳐가던 중 살아남은 아주 작은 새끼 멧돼지들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동주를 만나게 된 상욱은 곳곳의 총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더이상 누군가를 버리고 또다시 도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용기를 내 함께 수지를 찾아 헤맨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셋은 모두 모여 동주가 발견한 새끼 멧돼지를 사냥꾼 눈을 피해 보이지 않는 곳에 풀어주기 위해 산을 오르고 오른다.

#### 4. 장별 줄거리

붉은색 입술이 보고 싶어.

수지가 집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나타난다. 집에서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죽어간다. 수지는 커다란 가방에서 엄마를 살리기 위한 물건들을 꺼내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안간힘 쓴다. 하지만 엄마는 가만히 누워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다.

뜨거워지고 싶어.

매일 아빠에게 온갖 이유로 뒷산에서 매를 맞는 상욱. 그 산에 불을 지르기 위해 산에 오른다. 그 뒤를 동주가 따른다. 진짜 산에 불을 지르려는 순간, 상욱은 결국 아빠에게 혼이 날까 두려움에 도망치고 동주가 대신 산에 불을 지른다. 동주는 타오르는 불을 보며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

### A NEW LIFE.

불을 결국 지른 동주, 수지에게 집과 학교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다.

### 사랑, 사랑, 사랑.

수지는 동주 이야기를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 찾아온다. 아빠는 엄마가 있는 안방에 들어간다. 수지는 방문에 기대어 오늘은 이 둘이 싸우지 않기를, 이 둘이 화해하고 집 안에 이전처럼 평화와 행복이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 이유 있는 거짓말.

동주가 뒷산에 산불을 저지른 사건 때문에 수지와 상욱, 학교 교무실에 불려간다. 상욱은 아빠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은 오히려 동주를 막기 위해 함께 갔다는 거짓말을 한다. 수지는 부모님 대신 왔다고 동주가 곧 학교에 다시 올 거라는 거짓말을 한다. 수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학교 선생님과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상욱이 수지를 끌고 나온다. 상욱은 동주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짓말과 함께 수지와 함께 동주를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한다.

### 다 떠나간 집에서.

모두가 다 떠나간 집, 수지는 동주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기 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크게 외친다. 수지의 목소리가 텅 집 안에 메아리처럼 퍼진다.

### 비가 그칠 때까지만.

산속으로 떠난 동주, 불을 지펴보려고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 불을 지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길까지 잃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온다.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와 함께 새끼 멧돼지들을 발견한다. 동주, 죽어있는 새끼 멧돼지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멧마리를 찾아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내어준다.

### 죽기 전까지만.

수지와 상욱은 동주를 찾다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러던 중 상욱은 산속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놀라 수지를 붙잡다 넘어트리고 수지는 다리를 다친다. 이때, 죽은 멧돼지 사체들을 곳곳에서 보인다. 상욱은 점점 더 겁이 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러던 중 살아있는, 아니 총에 죽어가는 멧돼지를 만난다. 이제 더이상 움직일 수 없겠다고 판단한 수지는 멧돼지와 함께 남아있겠다고 한다. 상욱은 수지와 함께 가고 싶지만 커지는 총소리에 겁이나 결국 수지를 홀로 두고 도망친다. 수지는 멧돼지 옆에 함께 누워 총소리를 듣는다.

꼭대기까지.

수지를 찾는 동주와 상욱,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때 동주 가방 안에 있던 새끼 멧돼지들이 몸부림을 치며 가방을 빠져나와 온다. 그 길을 따라가니 죽은 멧돼지와 함께 수지가 누워있다. 다시 만난 셋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새끼 멧돼지들을 사냥꾼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기로 한다.

희미하게 살아있어.

수지, 동주, 상욱은 산꼭대기에서 새끼 멧돼지를 풀어준다. 수지와 동주, 산 아래로 내려가려는데 상욱이 이때 여기저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아주 약하게 불꽃이 튀어 오른다. 추위에 떨었던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불에 가까이 가 손을 천천히 대본다.

### 선정작 3 <노랑의 보색은 검정이다>

- 최현비 작

#### 1. 등장인물

박아린 : 18세

노랑 : 8세

#### 2. 무대구상

무대에는 박아린의 공간과 노랑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대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지만, 무대에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구획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등장인물의 대사에 따라 두 개의 공간이 합쳐지고 그것이 확장되기도 하며 연극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3. 시놉시스

1401호에 사는 박아린은 매일 밤 열두시가 되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자살 연습을 한다. 1402호에 사는 노랑은 매일 밤 열두시가 되면 상자 안의 병아리에게 바깥세상을 구경시켜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열두시에 박아린과 노랑은 서로를 발견한다.

상자 안의 병아리가 박아린의 방으로 빨려 들어가고, 노랑이 박아린의 방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시 박아린이 노랑의 방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

빨려 들어간 서로의 방안에서 상상 속 초록색 바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엔, 방문을 열게 되는 이야기.

방문을 열고 나가 만난 진짜 초록색 바다에서 춤을 추게 되는 이야기.

#### 4. 장면별 줄거리

#prologue. D-15

1001호에 사는 박아린은 연습을 하고 있고, 1002호에 사는 노랑은 시간을 세고 있다. 오전 12시가 되자 박아린은 핸드폰을 고정 시킨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노랑은 어둠 속 침대 밑에서 병아리가 든 상자를 꺼낸다. 그리고 박아린과 노랑이 창문을 연다. 노랑이 박아린을 발견하고, 박아린이 노랑을 발견한다.

#1. D-14

박아린은 100일째가 되던 날을 기억한다. 100일째가 되던 날, 박아린은 방문 밖의 엄마에게 평소와는 다른 말을 듣고, 1002호로 이사를 온 노랑은 평소와 같은 말을 듣는다. 갑자기 박아린이 우는 병아리 소리를 듣고 벽을 친다. 노랑은 깜짝 놀란다. 노랑은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박아린에게 말을 건네고, 박아린은 콘크리트 벽 건너의 노랑의 말을 듣는다. 노랑이 창문을 열고 박아린을 부른다. 박아린이 창문을 연다. 노랑은 자신의 병아리는 울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상자를 박아린에게 건넨다. 얼떨결에 박아린이 건네받는다. 노랑은 박아린에게 병아리의 이름이 '노랑'이라고 알려주며 '노랑'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2. D-13

노랑은 상상 속 초록색 바다에서 병아리와 함께 헤엄친다. 박아린은 시간을 거꾸로 켜다. 박아린은 자꾸 우는 병아리 소리를 듣는다. 박아린은 연습을 하다 말고 벽을 친다. 노랑은 방문 쪽을 바라보며 화들짝 놀란다. 노랑은 방문을 걸어 잠근다. 박아린이 다시 벽을 친다. 노랑은 벽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고 박아린을 부른다. 박아린이 창문을 연다. 갑자기 노랑이 창틀에 걸터앉고, 바람에 흔들리다가, 쇠파이프에 오른 다리를 걸치고, 윈다리를 창틀에 걸친다. 박아린이 소리 지른다. 노랑이 손을 내밀자, 박아린은 어쩔 줄 모르다가 노랑의 손을 잡는다. 노랑이 박아린의 방안으로 빨리 들어온다.

#3. D-13~D-2

박아린은 노랑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랑은 박아린이 생각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노랑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노랑은 상자 안의 병아리를 보살핀다. 박아린은 노랑이 싫지만, 궁금하기도 하다. 노랑은 박아린에게 초록색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노랑과 박아린과 상자안의 병아리는 상상 속 초록색 바다에 들어가 헤엄친다.

#4. D-2

노랑이 박아린의 이름을 부른다. 박아린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 없다. 그 순간 박아린은 며칠이 지났는지 깨닫는다. 노랑은 박아린에게 병아리가 닭이 되는 생일에 함께 초록색 바다에 가자고 말한다. 박아린은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결코 방문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박아린은 상자를 거꾸로 든다.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박아린은 상자를 집어던진다. 노랑은 병아리 상자를 들고 박아린에게  
씨발년,  
이라고 말한다.

박아린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노랑은 박아린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간다.

#5. D-1



박아린은 마지막 연습을 시작한다. 그때, 노랑의 방문 쪽에서 병아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병아리 우는 소리가 아니고, 병아리 우는 소리를 흉내 내는 소리가 들린다. 박아린은 무시하려고 애쓴다.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박아린이 노랑을 부른다. 박아린이 노랑을 야, 라고 부른다. 박아린은 아직도 노랑의 이름을 모른다. 박아린이 노랑에게 소리 지른다. 박아린이 갑자기 창틀에 걸터앉고, 바람에 흔들리다가, 쇠과이프에 윈다리를 걸치고, 오른 다리를 창틀에 걸친다. 노랑의 방 창문이 열린다. 박아린이 노랑에게 손을 건넨다. 박아린이 노랑의 방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 #6. D-1

노랑의 방은 더럽다. 박아린은 조그만 방안에 고장난 티비와 불어터진 컵라면과 삼각 김밥을 본다. 박아린은 운다. 박아린은 노랑에게 노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병아리 노랑의장례식을 치러주자고 말한다. 하지만 노랑은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노랑은 아직 뜯지 않은 색연필과 크레파스 세트들을 다 쓸 때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아린은 아주 많은 색연필과 크레파스 세트들을 던지고 밟는다. 박아린과 노랑은 색연필과 크레파스 가루들을 모아노랑의 재를 만든다.

#### epilogue. D-day

박아린과 노랑은 방문 밖으로 나간다. 박아린과 노랑은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 박아린과 노랑은 복도를 지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다.

아파트 옥상은 초록색 페인트로 코팅되어 있다.

노랑이 말한다. 초록색 바다다.

박아린이 크레파스와 색연필 가루들을 초록색 바다에 뿌린다.

바람이 흔들거린다. 노랑의 재가 바람에 흩날린다.

노랑과 박아린은 닭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며 웃는다. 해가 뜨기 시작한다.